

밀가루값 또 인상 ... 서민물가 '시한폭탄'

동아제분에 이어 CJ제일제당 4개월만에 또다시 밀가루 값을 대폭 올리면서 라면이나 과자, 빵 등 밀가루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류 가격이 또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밀가루 값 인상은 새 정부가 52개 생활품의 가격 동향을 주시하며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 1개월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소비자가 관련 업계에서 받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오는 28일부터 밀가루 제품 출고가격을 15~26% 올리기로 했다.

국내 3대 제분업체로 꼽히는 동아제분도 이에 앞서 21일부터 밀가루 제품 가격을 품

동아제분·CJ제일제당 등 4개월만에 대폭 올려 MB정부 '물가관리' 선언 한달밖에 안돼 충격

특별로 17%에서 최고 28%까지 인상했으며 대한제분과 삼양사 등 나머지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합류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밀가루 값 인상은 원맥 가격 상승과 해상운임비용 증가, 환율 상승에 따라 원가 부담이 커진 때문으로 작년 9월과 12월에 이어 최근 7개월간 세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라면·제과·제빵업체 등 관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움직임이 또다시 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을 비롯한 제분업체들

이 작년 9월 말에 13~15%, 작년 12월 초에 24~34%씩 밀가루 제품 출고가를 인상한 직후에는 농심, 삼양, 크라운, 오리온 등 라면 및 제과업체들도 제품당 가격을 10~30%씩 올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연초에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값을 올렸기 때문에 당장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가격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의 경우 연초에 인상을 계획했던 품목 중 아직 값을 올리지 못한 50여종의 가

격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올해 초 과자와 빙과류 등 15개 품목의 가격을 10~20% 폭으로 올리고 카스타드와 빼빼로, 롯데샌드 등 일부 제품은 중량을 줄였으나 올해 초 가격인상 예정이던 70여개 제품 중 20여개 제품만 값을 올렸다.

오리온과 해태제과 등도 최대한 인상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제품을 중심으로 밀가루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라면 제조업체들은 농심의 경우 2월, 삼양 식품은 3월에 각각 제품가격을 인상해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시설

여수엑스포 정부지원위 역할 기대 크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가 25일 여수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장승우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차원에서 엑스포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지원위원회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범정부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핵심은 인력 및 사회간접자본의 적극 지원이다. 여수~순천간 국도 우회도로와 철도, 전주~광양 고속도로 등이 망라됐다.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및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힌다.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도시와 국가들은 1851년 런던의 1회 대회 이후 국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왔다.

프랑스 파리는 1885년 이후 세계박람회를 8차례나 열어 관광대국의 입지와 예술, 패션,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일본은 1970년 오사카엑스포를 개최해 패전국의 명예를 벗고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스페인 세비야는 1992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부상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는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다. 국제사회에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국제 해양도시로서 친환경적 면모를 보여줘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여수 등 남해안 일대가 새로운 국제 해양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시장과 부대시설, 숙박 및 교통대책 등 대대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17대 마지막 국회 지역현안 적극 쟁겨라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25일 한 달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국회는 광주·전남지역에 기반을 둔 통합민주당이 국회의원 수에 있어 한나라당에 비해 강세인 마지막 국회의만큼 광주과기원법, F1 특별법 등 지역현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F1 특별법과 광주과기원법 등 지역현안 법안들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는 더욱 어려워진다. 지역현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 자칫 사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9 총선에서 낙선·낙선자가 대거 발생한 데 따른 저조한 출석률도 지역현안 법안처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어 지역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양미물 수만은 없다. 특히 F1 특별법은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J프로젝트의 선도시사업 뿐 아니라 오는 2010년 F1 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중요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현안 법안 대부분이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정치권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F1 특별법은 한나라당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주 역사도시특별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광주과기원법은 대전과기원의 역할 축소를 우려한 대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반대 의원들은 논리적으로 설득해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지역현안들의 처리를 쟁취해 다음 국회 회기에서 처리한다는 약속만이라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소연씨 28일 귀국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으로 우주임무를 완수한 이소연(29) 씨가 건강 검진과 지구 적응훈련을 마치고 28일 오전 귀국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씨와 예비우주인 고산(31) 씨가 28일 오전 2시15분(한국 시각) 모스크바 세레메체보 공항을 출발해 오전 9시2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12일간의 우주임무를 마치고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 소유즈 YMA-11호를 타고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한 뒤 모스크바 인근 가가린우주센터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며 건강 검진과 지구 적응훈련을 받아왔다.

이 씨는 귀국 후 29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예방하고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씨는 또 5월30일에 고양인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내달 초 열리는 '국제 우주기술 심포지엄'에 참여해 우주비행활동 등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취임 후 첫 5부 요인 초청 청와대 오찬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부터 시계 방향으로) 대통령,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류우익 청와대실장, 한승수 국무총리, 이용희 국회부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연합뉴스

광양 매실산업 특구로 정남진 장흥 문학특구

지식경제부는 25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전남 광양을 매실산업특구와 국제화·평생교육특구로 지정하는 등 모두 6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신규 특구는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광양 매실특구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제천 예곡 세라믹 건강특구 ▲충주 수상레포츠특구 ▲전안 국제화교육특구 등이다.

아울러 기존에 고추·구기자특구로 지정된 청양은 고추문화마을의 사업을 확대하고 순창 장류산업특구는 전통장류 제2생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말까지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 지역특구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이를 담은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쏟아 불출마 할테니 전원 복당을”

강재섭 “더 할 이야기 없다” ... 감정싸움 재점화

‘친박 인사 복당’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총선 직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간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첨거를 깨고 7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조건으로 친박인사들의 복당을 요구한데 대해 친이 측은 “그것이 박근혜가 말한 원칙이나”며 박 전 대표를 원칙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등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전대에 나가지 않을테니(당을) 나간 그분들을 전부 복당시켜 주기 바란다”며 친박인사들의 복당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조건에도 복당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대통령 경선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사적 감정 때문에 복당을 거

부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표는 “선별적으로 (탈당한 친박인사들을) 받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며 “아예 안 받는게 낫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선별 복당을 일축했다.

박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친박인사들의 복당을 막고 있는 친이측을 견제하면서 ‘선별복당론’으로 흔들리고 있는 친박계의 풍요를 차단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관측된다.

또 7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당내 상황상 여의치 않는데다 정치적인 실의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친박인사 복당요구에 대해 친이 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출신의 한 재선 의원은 “친박인사들

이 복당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당권도전과는 상관없다”면서 “박 전 대표의 이런 요구는 계파수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잘나라하게 보여 준 것, 그것이 박 전 대표가 주장해온 원칙이나”고 비난했다.

경기출신의 재선 의원은 “친박인들이 복당을 하려면 당헌 당규를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거쳐 국민들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순서”라며 “박 전 대표가 당권과 연계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친이 측 한 중진 인사도 “복당문제가 당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탈당 등 다른 정치적인 목적은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친박인사들의 선별 복당 가능성을 흘리면서 7월 전당대회 이후에 복당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휘발유 8당 사상 첫 1,700원 넘어

경유도 1,600원 돌파

세계적 유가 강세 속에 이번 주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당 각각 1천700원과 1천600원을 돌파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4.21~25) 전국 1천100개 주유소를 표본으로 실시된 가격조사에서 무연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7.79원이 오른 8당 1천705.81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 1천700원 선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휘발유 가격이 1천

706.20원으로 1천700원 선을 넘어섰으며, 전남 역시 1천03.92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8당 1천759.30원, 울산은 1천712.64원, 경기는 1천709.40원, 대전은 1천705.57원, 제주는 1천705.57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의 상승폭은 더욱 커 지난 주보다 29.34원이 오른 1천624.76원으로, 1천600원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유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로 이번 주 휘발유와 경유 간 평균 가격차이는 81.05원으로 더욱 좁혀졌다. 서울의 경유가격은 33.24원 뎀 1천687.86원으로 1천700원 선에 다가갔다. /연합뉴스

기아차 2분기 연속 흑자 기록

1분기 영업이익 1,020억

기아차가 올해 1·4분기에 영업이익을 내면서 2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기아차는 25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올해 1·4분기에 매출 3조7천189억원, 영업이익 1천200억원, 경상손실 501억원, 당기순손실 24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3.4%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천757억원 가량 수지가 개선됐다.

기아차는 작년 3·4분기에 영업손실 1천165억원을 낸 뒤 4·4분기에 영업이익 977억

원이 발생하면서 결국 지난해에 영업손실 554억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1·4분기에 영업 이익을 내면서 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기아차는 그러나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부채 평가손실 증대로 인해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4분기 내수 판매실적은 올해 출시된 뉴모닝 판매 호조로 작년 동기 대비 10.5% 늘어난 7만4천209대를 기록했지만 수출은 17만7천422대로 13.0% 줄면서 총 판매 실적은 7.2% 감소한 25만1천631대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빛의 만평

- 김중두



청와대 정보도 줄줄 새는 판에...

전남 시 정밀검사 추가 6건도 '음성'

전남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가금류 가운데 6건이 AI 저병원성 또는 일반 질병인 것으로 나타나 AI가 전국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집단폐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축산기술연구소의 간이검사서 양성 반응을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던 4건 가운데 영암군 시종면의 공모찌 농가의 경우 AI 저병원성으로 밝혀졌고 영암군 덕진면 3개 농가는 일반 질병으로 확인됐다.

또 집단폐사가 발생해 정밀검사를 의뢰한 나주시 남평면의 송모찌 농가와 여수시 화양면 이모찌 농가의 경우에도 일반 질병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도는 이날 오전에도 나주시 금천면 강모씨 농장에서 또 오리 800여마리가 집단폐사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도는 이번엔 집단폐사가 발생한 곳이 AI 첫 발생지인 영암 신북으로부터 10km 경계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밀검사 대상이 잇따라 일반 질병 등으로 나타나 전남지역에서는 AI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집단폐사 농장에 대한 간이검사 결과 함께 양성반응이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일반 질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 회 생 활 부 2200-626 여 령 매 체 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